

2020학년도 <지리 경관 사진전> 대회 계획

군산동고등학교

I 추진 목적

-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변화를 이미지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사고력과 상상력을 기름.
- 일상과 여행에 대한 교육적 의미 부여와 지리교과에 대한 학생 인식 제고
- 사진과 메시지를 통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감수성, 심미적 안목, 자기표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름.

II 세부 내용

□ 참가 대상

1, 2, 3학년 전교생

□ 일정

- 제출기한 : 2020년 6월 8일(월) ~ 6월 26일(금) 16:30까지
- 심사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 7월 3일(금)
- 결과공지 : 7월 4일(월)

□ 제출양식 : 학교 게시판에 탑재(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 참가 방법 : 담당 교사의 e-mail로 온라인 전송 (박초영 : pcy326@naver.com)

□ 사진 심사

심사 형태	제출된 사진 및 경관 설명에 대한 내용을 3명의 사회과 교사가 심사
심사 기준	지리 경관으로써의 적합성(10), 사진 작품으로써의 예술성(20), 제출자의 지리 경관 이해도(30), 제출자의 지리 경관 해석력(30), 제출물의 작품성(10)의 항목을 점수화 하여 심사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은 출품할 수 없으며, 인터넷 사진으로 출품하는 등 부정한 방법이 의심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사회과 행사에 참가할 수 없음.

□ 시상 계획

구분	참가대상	시상 계획
지리 경관 사진전	1, 2, 3학년 중 지리경관 사진 제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중 20% 수상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우수 작품은 일정 기간 동안 전시 - 상장 및 문화상품권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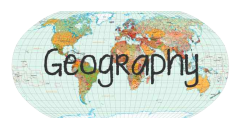
2020 나의 자리 사진 이야기

사진제목			
이 름		학 번	
촬영 장소		촬영 날짜	

● 유의사항

-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지리적 경관 사진을 붙여넣기(공간 조절 가능)
- * 해상도가 낮아 사진이 깨지거나 흐린 경우 감점함
- * 사진을 글자취급으로 설정해 밀려나지 않도록 편집 바람
(사진클릭→오른쪽 마우스→개체속성→기본, 위치에서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표시)
- * 사진을 최대한 크게 넣을 것

- * 지리 경관에 대한 설명을 알차게 쓰기
 - 지리적 개념 설명
 -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현상
 - 이 경관을 보고 내가 느낀점
- * 1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분량을 조절할 것
- * 글자 크기 10, 글자체 맑은 고딕, 문장간격 160%의 규격을 지킬 것



2020 나의 자리 사진 이야기 (예시 1)

사진제목	(예시) 부산의 아이들		
이름	박 초 영	학 번	3226
촬영 장소	부산 감천문화마을	촬영 날짜	2019.10.31.



감천 문화 마을은 6.25. 때 피난민들이 힘들게 살았던 곳으로, 아직도 원형 그대로의 마을을 보존한 관광지가 되었다. 산 아래로 수많은 집들이 계단식으로 모여 지어진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곳의 지형은 가파른 형태를 하고 있어 평탄한 주거지가 존재해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마을들이 이렇게 산을 오르듯 가파른 경사에 집을 지어놓고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허름한 지붕과 다닥 붙어있는 집, 알록달록 칠해놓은 벽면이 다채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듯하다. 6.25.시절을 이겨낸 힘든 피난민들의 생활이 그려지는 듯해서 아이들의 모습이 슬프게 느껴졌다.

2020 나의 지리 사진 이야기 (예시 2)

사진제목	(예시) 강이 만든 조각품		
이름	박 초 영	학 번	3227
촬영 장소	미국 애리조나주 호스슈 밴드	촬영 날짜	2019.7.31.



말굽 모양으로 생긴 콜로라도 강의 물굽이를 일컫는 호스슈 밴드는 파웰 호수와 그랜드 캐년 댐에서 하류 쪽에 있는 작은 도시인 페이지에 위치해있다. 거대한 콜로라도강이 조각한 작품인 호스슈 밴드는 평평한 고원 사이를 수만년 간 굽이쳐 흐르며 이 엄청난 조각품을 완성했다. 300m 높이로 새겨진 호스슈 밴드는 이름처럼 말발굽을 빼닮았다. 콜로라도 강은 협곡의 가장 낮은 곳에서 끊임없이 고요히 흐르며 신비로운 에메랄드 빛을 뿜내며 붉은 사암 바위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 돌다 흘러간다.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15분 정도 걸어가면 숨막히는듯한 절경이 펼쳐진다. 이런 위대한 지형을 만들었음에도 조용하고 잔잔하게 자신이 갈 길을 흘러 가는 콜로라도 강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